

외국인 학생 인권 카드 뉴스



인권앰베서더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창조적 글로벌리더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하는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영어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6,02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연세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외국인 학생 131,848명 가운데 약 4.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수이며, 2018년 국내 25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2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6,020명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 인권, We Protect

인권앰베서더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1. 공지 전달

“포스터 등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학기 초 OT가 있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수강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몰랐다”

“휴강 등의 중요 공지를 받을 때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

설문 결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내 필요한 정보(학과 공지, 카카오톡 공지 등)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공지 전달



<http://www.fnnews.com/news/201809051436254194>

A씨는 '2년 넘게 학과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고, 들어갈 방법도 알 길이 없다'며 불편함을 호소 했습니다.

1. 공지 전달



기숙사의 안내방송이 한국어로만 진행되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숙사의 화재발생대피훈련과 관련한 방송 조차도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면, 재난의 상황을 대비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행정처 및 강의 영어 지원 상황

과 사무실 등의 교내 행정처에는
영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처 직원과 영어로의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통역
어플을 사용하면서 힘겹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행정처 방문 시, 또는 행정처에 전화문의 시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교직원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행정처 및 강의 영어 지원 상황



A씨는 졸업 요건, 전공 학점 문의,
계절학기 신청 등의 문의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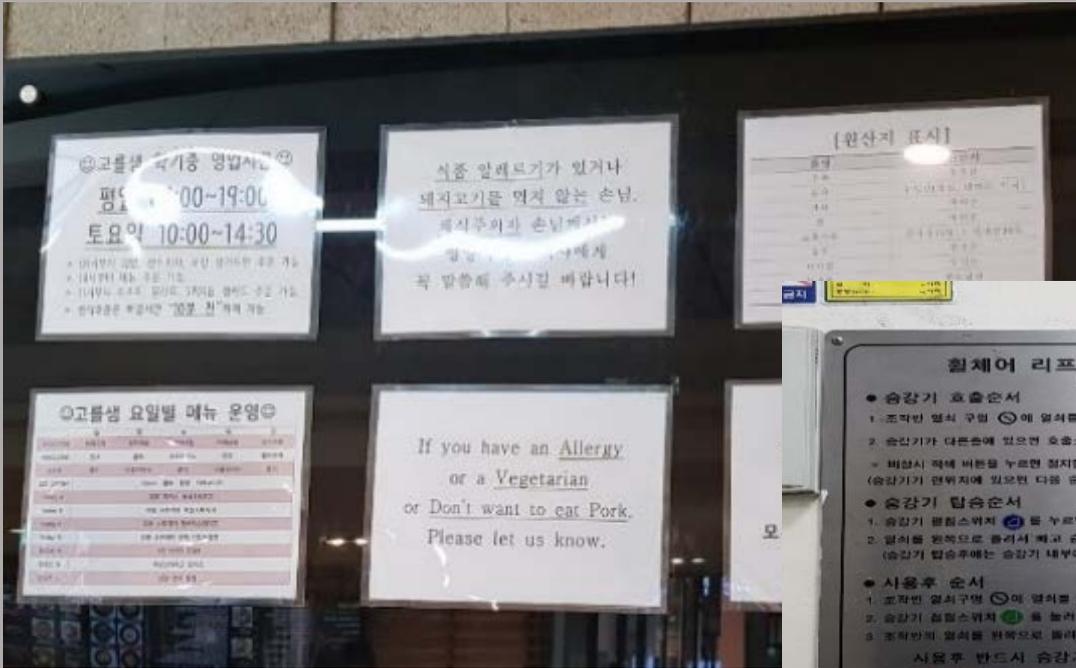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2. 행정처 및 강의 영어 지원 상황

영어 강의로 개설된 수업에서
한국어 사용을 허용하거나, 영어 강의의 조교가
한국어로만 설명하여 외국인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영어 강의 시, 영어 사용에 대한 기대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영어 복수표기



각종 게시판의 공지에 영문표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각 단과대 건물에 게시된 학사공지와
식당 메뉴의 식재료, 원산지 등의
영문표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4. 국제캠퍼스 생활

국제캠퍼스에서 학생들은 필수로 RC자기
주도활동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하우스 공지, 학부대학 공지 등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4. 국제캠퍼스 생활

“처음에 입학할 때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외국인들을 위한 지도가 없어서 힘들었다.”

“학기 초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했던 학생의 대략적인 번역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RC 공지와 국제 캠퍼스 활동에 대한 공지와 알림은 한국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초반의 적응단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5. 차별대우

설문에 제출된 외국인 학생들의
공통된 견해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특정 인종의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5. 차별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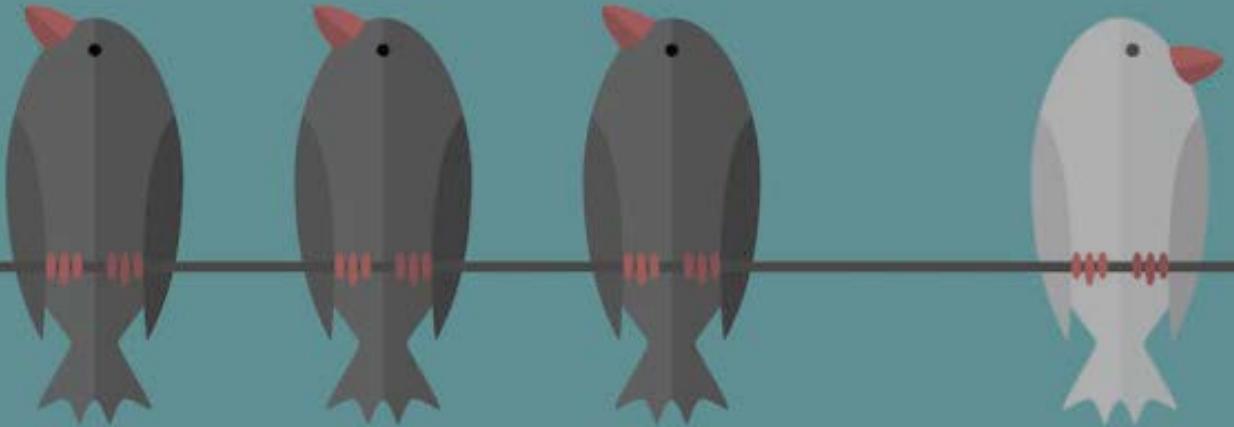
조모임 시에, 외국인과 같은 조에 편성되는 것을 꺼려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길거리나 강의실, 웹사이트 등에서 외국인을 향한 비난, 혐오의 표현들이 들리곤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가 잠이 든 줄 알고 옆에서 지나친 주관적 국가차별 발언을 하였습니다.”

“有一次过人行横道的时候，我正常跟别人聊天讲中文，旁边两个韩国人笑嘻嘻的看了我一眼，大喊了一声“TAIWAN NO.1”。各人有各人的政治立场没问题，但是故意在中国人面前毫无理由的突然这么说一句，可以看出是对人非常不尊重的。(번역: 한 번은 횡단 보도를 건널 때 중국어를 제대로 하는 편이었는데, 두 명의 한국인이 히히히 웃으며 나를 쳐다보며 'TAIWAN NO.1'을 외쳤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의로 중국인 앞에서 이유 없이 불쑥 한마디씩 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 매우 존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 차별대우



<https://i-sight.com/resources/discrimination-in-the-workplace-guide/>

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행사에 참여할 때에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활동 참여의 목적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5. 차별대우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학생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一门教养课，教授在同样的成绩和出席情况下给了韩国学生D，给了中国学生F。(번역: 한 교양수업에서 교수는 성적과 출결 상황이 같은데도 한국학생에게 D를, 중국 학생에게는 F를 줬다.)”

“I know about many professors that asked some of my friends to withdraw the class because as ‘foreigner’ it will be hard to pass and so.”

강의 중 교수자가 특정 인종이나 국적을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수강 철회를
권유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5. 차별대우



A씨는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여기 혹시 중국인 학생 있나요?”라고
물은 뒤 대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발
언을 하며 희화화 하는 것을
보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학은 올바른 교육의 길로 학내 구성원들을 인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아탑입니다.



구조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외국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잘 마련해 두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세계를 상대로 스스로를 국제적인,
글로벌한 대학교라고 홍보하면 안된다.”

연세대학교는 정말로 외국인들을
연세대학교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이 교육의 전당에서,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누리고
학교의 일원으로 성장해 사회로 나가게 되는
동등한 주체로 여겨지고 있습니까?